

2018년 2월 17일 “(성경의 큰 숲 보기 5) 레위기: 그리고 부르시니”(레 16:6-10; 25:8-12)

<도입>

레위기라는 이름은 영어와 우리 성경에 레위지파를 따서 붙여졌지만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시니”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란 접속어 사용은 앞의 출애굽기 내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사건, 율법 수여,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성막에 관한 출애굽기 말씀 후에 주님과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관해 가르치시려고 ‘부르십니다’. 오늘은 이것에 관한 레위기 말씀을 개관하겠습니다.

[1] 그리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백성을 제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제사의 방식과 목적,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목적에 따라:

- i. 번제: 매일의 고백과 경배를 표하기 위해 (자원 및 의무)
- ii. 소제: 순수한 순종을 드리는 표로 곡식 제물 드림 (자원)
- iii. 화목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 (자원)
- iv. 속죄제: 범죄, 부정함,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해 (의무)
- v. 속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 한 것에 대해 (의무)

제사 방식에 따라: 태우거나(화제), 흔들거나(요제), 들어올리거나(거제), 액체(포도주...)를 부음(전제, 관제)

모든 제사의 목적은 주님/사람 앞에서 당신의 백성답게 자유케 하고 회복하기 위함 입니다. 이것을 위해 자기 성찰, 하나님께 집중, 헌신의 의미를 깨달음, 주님과 만남이 요구됩니다. 결과는 삶의 기쁨(활력 -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제사의 과정: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제사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제사 절차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 후 돌려받은 고기로 이웃과 잔치를 하고 화목을 이룹니다. 이것은 삶의 실질적 변화이며 회복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와 축복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 바탕 위에 피어나는 삶의 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19:18 참고).

[2] 모든 제사는 속죄를 통하여(16 장)

제사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키입니다(삼상 15:22 참고). 절차에 대해 자기 생각/주장(예고)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자신의 모습(내면과 행실)이 정직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깊이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제사자를 용납하고 교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7월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본문).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안수 한 후에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의식입니다. 제사장들이 수 km의 광야길을 분담해서 절벽에 당도할 때까지 끌고 가서 아래로 떨어뜨려 죽게 합니다.

아사셀의 뜻: (1) 떠나는 염소를 의미하는 복합어; (2) ‘추방하다, 제거하다’ (3) 예복서 - 아사셀을 귀신으로 언급. 따라서 축출한다는 의미로.

백성들은 속죄일을 통해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들은 용서 받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사이가 멀어진 사람을 찾아가 화해합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화목의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용서의 과정을 걷는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웃과 화목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주장을 접는 정직한 예배자(제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삶의 행동양식에 먼저 있지 않고, 예고와 싸우는 내면의 정직성에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 자기비하, 타인 폄하, 조급함, 속상함, 수치심, 불안이 나를

장악하면 나는 결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예배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은혜의 해'라고 불리는 희년(Jubilee)의 삶입니다.

[3] 그리고 이루어지는 삶(25 장)

25:8 이하 희년 선포. 50 년마다 맞게 됩니다.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하게 되고, 빚진 돈은 탕감되고, 팔아버린 땅은 옛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종의 주인, 돈을 빌려준 채권자, 땅의 새주인들이 하나님 법(말씀)을 앞세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과 배려를 베풀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불합당하고 불합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년에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온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해방과 유업의 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희년 준수는 하나님 것으로 땅의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민족 차원의 순종입니다. 구약 백성은 이러한 **해방과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구원을 누렸습니다. 제사자로부터 이런 희년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으로 희년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눅 4:18-20**(사 61:1-2 과 함께 읽어보세요) 이사야는 희년의 성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선포한 희년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음>

구약 제사는 제사자가 속죄를 경험하고 용서, 화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희년의 축복을 고대합니다. 삶의 참 자유와 회복의 즐거움으로 활력(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제사와 오늘날 예배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배자의 정직성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에 있습니다. 레위기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유업의 회복이 우리 삶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레위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제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3. 오늘 레위기를 배우면서 예수님께 속죄함을 받고 희년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할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